실사단 환영 시민준비위원회 전호종 위원장

"위원 한 명 한 명에 뜨거운 감동을"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해 보여준 지역민의 열기를 광주에서 다시 한 번 보여줄 겁니다."

1일 광주를 방문한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실사단에게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뭉쳤다. 'U대회 실사단 환영 시민준비위원회' 전호종(54·조선대 총장) 위원장은 실사단을 맞아 "최대한 감동을 안기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전 위원장은 "현장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역민의 유치 열망과 의지라 들었다"며 "지난해 말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벌인 U대회 관련 설문조사에 95%가 넘는 시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만큼 그 관심을 잘 포장해 보여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 위원장은 U대회의 전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했던 100만명 서명운동이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목표치를 돌파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시민준비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체육계, 여성계, 학계 등 광주지역 인사 33명으로 구성됐다.

"10만명 규모의 시민지원단과 자발적으로 구성된 대학생 지원단 등도 실사단에게 최고의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광주시민의 열망이 실사단에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는 일만 남았죠."

그는 비록 전남이긴 했지만 광주시민들이 여수엑스포 유치에 열렬하게 지지를 보내고 적극적인 유치 열기를 보여줬던 것이 적지않은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위원장은 "실사 일정은 5일로 마무리되지만 실사위원 한 명 한 명이 평생 기억될 감동을 갖고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도록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이라며 "실사단의 세부 일정에 나온 이동경로를 그림자처럼 따라붙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영단은 1일 광주공항에서 레드카펫을 깔아 실사단 맞이에 나서는 것을 시작해 숙소인 신양파크호텔까지 가는 길목 곳곳에서 실사단을 뜨겁게 맞이했다. 또 실사단의 방문지인 국립5·18민주묘지, 월드컵경기장, 조선대, 호남대 등은 물론 이동로에서도 열렬한 환영 열기를 뿜어내게 된다. 'U대회 유치기원 100만명 서명록'은 2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리는 시민축제에서 이들에게 전달된다.

그는 "지난해 7월 U대회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뒤 오늘까지 광주시민들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U대회 유치 성공을 통해 '예향(藝鄕)' 광주가 국제적인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하계 U대회 유치 실무 총괄 이기신 광주시 도시마케팅본부장

"준비 만전… 유치 성사만 남았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현지 실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 만큼 이제 시민들이 유치열망을 보여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2013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유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기신 광주시 도시마케팅본부장은 1일 "실사단이 머무는 동안 시민들의 뜨거운 유치열기를 실사위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0일 광주시가 국내 U대회 개최 도시로 확정되자 마케팅본부를 U대회 유치 체계로 바꾸고 U대회 유치위원회 지원, 현장 실사준비를 도맡는 등 U대회 '야전사령관'을 맡고 있다.

"이번 실사단의 방문에 맞춰 연인원 20만명이 실사단 환영행사 등에 참석키로 약속하는 등 뜨거운 성원이 이어지고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뜨거운 열기를 보여준다면 실사단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광주시의 강력한 라이벌인 카잔은 무려 6년 동안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국가로, 이번이 세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상대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FISU실사를 위해 4개월 동안 모든 역량을 쏟았다는 그는 대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FISU집행위에서 집행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마지막 프리젠테이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치 경쟁 3개 도시 가운데 광주시가 마지막 프리젠테이션의 기회를 갖게된 만큼 대회 개최 당위성과 광주시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광주를 어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는 유치경쟁국과 차별화된 실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했다고 귀띔했다.

"우선 실사단 들이 시민들의 열기도 보지만 가장 높은 평가를 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참여도 입니다. 16개 대학 재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생자원봉사자를 구성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U대회의 주역이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실사단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입니다. 또 미래 U대회의 주역인 중·고등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만큼 이번 실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실사단이 머물게 되는 4박5일 동안 시민들이 환영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광주시가 U대회 개최 도시로서 손색없다는 점을 실사단에게 심어줬으면 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1일 밤 숙소인 광주시 동구 지산동 신양파크호텔에 도착하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현지실사단에게 광주 장원초등학교 합창단 50여명이 깜짝 공연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장원초 합창단, 실사단에 깜짝 노래 선물

실사 일정 첫 날인 1일 오후 7시50분, 여장을 풀기 위해 광주시 동구 지산동 신양파크호텔에 도착한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현지실사단'은 버스에서 내리면서 은은하게 퍼지는 어린이들의 화음에 깜짝 놀랐다.

광주시의 실사단 맞이 일정에도 없던 '깜짝쇼'의 주인공은 장원초등학교 4~6학년으로 구성된 합창단 어린이 50여명. 장원초는 실사단의 숙소인 신양파크호텔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학교다.

지도교사 조순현(여·25)씨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호텔이 가까운 곳으로 정해지자 학생들과 환영행사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오늘의 작은 공연을 위해 이틀 동안 특별히 연습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작은 세상', '숲속을 걸어요' 등 동요 4곡을 들려줬다.

합창단은 지난해 광주 동부교육청 주최 학생 종합예술제 합창 부문에서 금상을 차지하는 등 실력도 수준급이다. 천사같은 아이들의 선율을 들은 실사위원들의 입가엔 흐뭇한 미소가 그치질 않았다.

합창단원 김승연(12·6학년)양은 "따로 남아서 합창연습을 했지만 광주가 U대회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에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다"며 "광주에서 U대회가 개최되면 그 땐 경기장에 가서 큰 소리로 응원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